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민환



일제 강점기에 토호들이 재미 본 것이 양조장 경영이다. 전애야 아무나 술을 담가 마셨지만 총독부가 법을 만들어 일정 지역에 양조장 하나만을 허가해 술을 만들어 팔게 했다. 지역 독점을 총독부가 뒷받침한 터여서 양조장 주인은 땅 값고 해 얻치는 식으로 돈을 벌었다. 광복 이후에도 그런 제도가 유지되어 곳곳에서 양조장 주인들이 위세를 떨쳤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되었다.

60년대 이후에 돈을 많이 번 곳이 방송사다. MBC가 대표적인 예다. 부산에서 부산문화방송을 운영하던 김지태씨는 서울에서 민방허가를 얻어냈다. 이 방송은 초기에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월말이 다가오면 종역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돈을 구해와 월급을 주기도 했다. 아나운서들은 방송실마저 냉방이 되지 않아 여름이면 밀폐된 방송실에서 탁자 아래 얼음 대야를 갖다놓고 발을 담근 채 방송을 했다. 뒷부분만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어떤 아나운서는 바지를 벗고 방송을 했다.

그러나 이 방송사에 곧 돈이 쏟아져 들어왔다. 광고 덕분이었다. MBC에 광고를 가장 많이 낸 것이 일동제약의 ‘아로나민’과 동아제약의 ‘박카스’였다. 두 제품이 텔레비전 광고를 타자 판매가 폭증했다. ‘아

로 나민’은 MBC에 힘찬 활력을 불어넣었고 ‘박카스’는 MBC의 파로를 맘껏히 었어주었다. 두 제품의 성공 신화는 광고 전성시대를 열었고 그 덕에 MBC는 탄탄한 경영기반을 구축했다.

우리나라에서 광고는 그야말로 압축적으로 성장했다. 그 시절에 10년이면 대체로 열 배씩 GNP가 늘곤 했는데 광고비는 스무 배 가까이 뛰었다. 광고 규모가 폭증한 데는 그럴 만 한 이유가 있다. 당시 제품은 모두가 신제품이나 마찬가지였다. 뭐가 돈이 된다 하면 너도 나도 유사품을 만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상품의 인지도

를 높이는 것이 승부의 관건이었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광고가 묘약이었다.

이렇게 광고가 폭증하면 방송사 수가 늘어나 한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방송 시장에 신규 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막았다. 방송뿐만이 아니라 신문시장도, 출판시장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정책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도 고수했다. 총독부가 신규 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일제 강점기에 양조장이 때돈을 벌었다면 70년대 이후 방송사도 비슷한 정책 덕에 거대자본으로 성장했다.

앞으로 방송광고 사정이 크게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 전처럼 자본주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광고비를 쏟아 부으면 그만큼 팔리던 시대도 지났다. 소비자는 인터넷에 들어가 살 상품을 정해 온라인으로 직거래한다. 그래서 세계의 광고주들이 인터넷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양조장과 방송사 사이에 다른 현상은 또 있다. 너도 나도 양조장을 하려 한다는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그야말로 우수무발이 다 방송 사업에 군침을 흘리는 것은 편이한 현상이다. 신문사들도 방송을 겸업하고자 한다면 20년 뒤에 문 닫을 신문사가 10년 뒤에 문 닫는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하기가 자기 돈 가지고 하겠는데 할 말은 없다.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조장과 방송사

그러나 양조장이나 방송사나 그런 호시절은 갔다. 시골 양조장은 대부분 경영난을 겪다가 문을 닫았고 일부가 남아 있지만 목하 고전중이다. 방송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양조장과 방송사가 공경에 처한 이유는 비슷하다. 양조장이나 방송사나 독점경영의 제도적 지원이 사라졌다. 술 시장에 전에는 막걸리가 소주가 고작이었으나 이제는 위스키나 포도주에 중국 술까지 넘쳐흐른다. 방송시장에도 전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뿐이었지만 요즘은 케이블에 위성에 IPTV에 인터넷에 뭐에, 매체 종류를 세기도 쉽지 않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이진영



신로심불로(身老心不老)란 옛말이 있다. ‘몸은 늙어도 마음만은 늙지 않고 젊은이 마음과 같다’는 뜻으로 육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정신 세계는 젊어질 수 있다는 교훈이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인실태조사 결과 “연장자 대접은 좋지않 노년 취급 받기는 싫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다시 말해 뒷방 늙은이 신세는 되기 싫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몸과 마음이 왕성한 신(新) 노인들을 아우를 준비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공영장은 물론 저렴한 가격의 목욕과 점심 식사에 대한 이용객들의 반응은 대만족이다.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로 복지예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노인세대는 비참했던 근·현대사를 다 겪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을 세계 12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시켰고 자식 부양에 일생을 바쳤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복지정책을 주요 시책으로 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노력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해설된다.

그렇더라도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

빛고을 노인건강타운과 노년의 斷想

박광태 광주시장이 발 빠르게 전국 최초로 남구 노대동 일대 41만 2천724㎡의 넓은 부지에 연 건축면적 5만1천832㎡의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개장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복지관과 문화관, 체육관, 후생관, 생활체육공원, 75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 및 클럽하우스는 이미 지난 6월10일 문을 열었고 골프장 9홀도 오는 11월 개장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2011년 준공 예정인 퇴행성 질환전문병원과 치매병원 고평천화재품 종합체육관이다. 이들 병원과 시설들이 본격 가동되면 겨울철에도 따뜻하고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은 명실공히 세계적인 노인복지천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이용자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올해 72세인 필자의 경우 아침 일찍 1천원짜리 대중목욕탕을 찾는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 뒤 노래 공연장에서 무료 공연을 즐기고 역시 1천원을 내고 점심식사를 한다. 무료

지정책을 극히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다. 시설물을 아끼고 운영규칙을 솔선해서 잘 지키는 것은 이용객들의 당연한 의무다. 그럼으로써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우아한 내면의 아름다움도 함께 가꾸게 될 것이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짧은 시간 내에 노인들의 안락한 쉼터이자 보금자리로 자리매김 한데는 수준 높은 시민의 식과 함께 나무석 원장의 탁월한 관리 능력도 한 몫 했다. 나원장은 전남도청에서 공무원교육원장과 군수를 역임한 뒤 광주시 부시장까지 지낸 지방행정의 달인이다. 일 처리가 공정하고 명쾌하며 의리와 배짱까지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분들의 탁월한 운영 솜씨 덕분에 우리 노인들은 빛고을노인 건강타운을 더욱 편안하고 친숙하게 이용하고 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노인들의 천국이자 광주의 자람이 아닐 수 없다.

〈추니평건설 부회장〉

기고

서흥원



최근 장마로 인해 가뭄도 끝나고 수질도 좋아지는 등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아쉬움이 하나 남는다. 바로 호남의 젓줄이라 하는 영산강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영산강이 호남의 육토를 기름지게 하는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충분하고 깨끗한 물을 대주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영산강을 살리고 호남도 발전할 수 있는 상생(相生)의 방안을 찾을까 고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하다. 이러한 물

서는 공강폐수나 하수와 같은 점오염원과 함께 이들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절실하다. 따라서 이번 사업으로 하천 내 경작지가 정리되고 다양한 비점오염물질 관리시설이 설치되어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물론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모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기에 하천전설이나 보 설치 등의 일부 사업은 공사 과정이나 공사 이후에 수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용수확보나 친수공간 조성에 효과 있고, 진공흡입과 같은 선진적인 준설공법을 적용하거나 가동보 방식으

영산강 살리기에 대한 기대와 각오

음에 정부는 ‘영산강 살리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영산강 살리기’는 하천 정비와 물그릇 키우기, 수질 관리, 그리고 강과 문화의 어우러짐을 추구하는 범정부적인 종합계획이다.

동 사업은 14개 저수지 증고 및 하천 준설, 2개의 보설치와 같은 물그릇 키우기와 홍수조절지·저류지 설치와 영산호 갑문 확장 등의 홍수 예방, 환경기초시설 신·증설과 보강, 비점오염물질 관리 등의 수질 개선, 친수공간과 자전거길 조성 등의 문화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조8천억 원 규모의 대사업으로, 동 사업 이후에도 추가적인 지천 정비 등이 예정되고 있다.

먼저, 하천 내 경작지가 보상, 정리됨으로써 하천수질에 큰 영향을 미쳤던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역 내 농경지가 34%로 4대 강중에서 가장 높은 농경지 비율을 차지하는 영산강은, 농경지,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이 전체 오염비중의 2/3 정도로 추정되며, 수질개선을 위해

로 보를 설치하는 경우 생태계 피해나 수질 악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수질오염 통합방재센터’를 운영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신속하게 대비하여 오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 중 수질개선사업을 지원하거나 하천정비 등 각종 세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업무를 담당한다. 비록 동 사업이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나, 여러 환경상의 우려를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 청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물그릇 키우기나 강 중심의 문화 확산이라는 애초 취지를 살리면서 생태계나 수질 등의 환경문제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전문가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그리고 진심 어린 비판과 조언을 함께 부탁드리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가정에서 ‘PC앞에 앉지 않기’ 운동 펼쳤으면

얼마 전 교육방송 EBS에서 가정에서 TV 끄기 실험을 한 결과 가족들의 생활이 180도 바뀌었다고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다. TV를 끄고 나니 가정환경이 바뀔 정도라는 게 실험으로 드러난 것이다. TV리모컨을 쥐고 살던 가정은 아이들을 돌보거나 청소를 하고 책읽기를 싫어하던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이 저절로 생기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TV끄기’ 기사를 접하면서 ‘PC앞에 앉지 않기’ 운동을 펼쳐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가정 내에서도 PC로 인한 갈등이 적잖은 것이 사실인 요즘 가정에

서 PC를 멀리하면 TV보다 더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V 끄기 실험에서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신문사와 방송국이 사회 여러 단체와 손잡고 각 학교와 공공기관의 협조를 얻어 가정에서 PC앞에 앉지 않기 운동을 벌였으면 한다. 가정에서는 가정 나름대로 PC 멀리하기를 추진한다면 가족애가 한층 높아질 것이며, 또 아이들도 한 달에 단 하루 이틀만이라도 PC를 떠나 정서적으로 안정감있게 자기를 돌볼 수 있을 것이다.

▲박진희·목포시 서산동

시설

나로호 발사 D-7 성공 기원한다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가 드디어 오는 11일 발사된다. 지난 2002년 위성발사체 개발사업에 착수한 뒤 7년여에 걸친 각고의 노력에 결실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나로호 발사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한국은 자국에서 위성을 발사한 10번째 ‘우주클럽(Space Club)’ 국가가 된다. 1992년부터 외국에서 위성을 발사해왔던 대한민국이 우주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초를 갖추게 된 셈이다.

우주산업은 막대한 투자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블루오션 산업이다. 고희 나로우주센터 건설비를 포함하면 나로호 발사에 8천억원이 넘는 돈이 투자됐다. 기계·화학 등 전통적 산업 분야뿐 아니라 신소재 및 전자 등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과학기술의 총 집합체이기도 하다.

성공해도 매우 낫다. 이제까지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린 나라의 성공률은 고작 30%대이며 더욱이 첫 발사 성공

률은 그보다 낮은 27%에 불과하다. 우주클럽 9개국 가운데서도 자력 발사에 성공한 나라는 러시아(옛 소련), 프랑스, 이스라엘 3개국뿐이다.

나로호 발사의 준비 과정을 보면 우주클럽 국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할 수 있다. 러시아 측이 기술이전을 늦추거나 부품조달에 차질을 빚는 바람에 개발 일정이 여러 차례 늦춰져 왔다. 11일 발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늦춰질 수밖에 없다. 기상상태가 나빠도 발사일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발사 순간까지 양국 기술진들의 빈틈없는 기술공조가 요구된다.

나로호의 성공 발사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관심도 뜨겁다. 독도함에 승선해 나로호 발사장면을 관람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응모에 전국에서 4만2천834명이 몰릴 정도다. 차질없는 준비로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새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금호 ‘형제 다툼’ 기어이 법정까지 가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형제 싸움’이 기어이 법정으로까지 비화할 조짐이다. 박찬구 전 석유화학 부문 회장이 1주일 간의 침묵을 깨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 전 회장은 자신의 조카이자, 박삼구 명예회장의 아들인 박세창 상무의 주식 매입 과정을 폭로하며 법적 조치까지 시사했다. 이번 일로 금호그룹 이미지와 투자자 신뢰가 떨어져 금호가 풀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지역민의 걱정이 태산이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이 금호석유화학 이사회에서 해임된 과정에 대해 형인 박삼구 당시 회장이 불법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했다며 그동안 그룹측과 상치되는 주장을 폈다. 또한 박세창 상무의 주식 매입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형과 조카를 고발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특히 박 명예회장에 대해 경영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을 비롯한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형제간 다툼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금호가(家)의 형제간 분쟁은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금호그룹이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형제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지금은 그룹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 힘을 모아 때지 서로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두 오너 형제가 힘을 합쳐도 힘난한 가시밭길인데 법적 분쟁을 강행할 경우 그 결과는 암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호는 과거 오너 일가의 분쟁으로 물량의 길을 걸은 타 기업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이는 그룹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오너 두 형제가 다시 손을 맞잡고 그룹의 활로를 찾는 것이 그동안 보여줬던 지역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다.

無 等 鼓

‘흥겨움이 가득한 곳’이라는 한자 뜻을 가진 고흥(高興)에서 오는 11일 대한민국이 경사가 벌어진다.

지난 2002년부터 10여 년 가까이 공을 기울여 개발해 온 대한민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특별한 기상이변이 없는 한 이날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우주센터에서 쏘아 올려질 예정이다.

로켓 발사를 앞두고 우주센터와 가까운 지명은 로켓발사 같은 국가적인 경사를 미리 암시해 왔다는 속설이 전해진다.

우선 나로도도 원래 나라에서 운영하던 국영목장이 있는 섬이었다. 이 같은 연유로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는 ‘나라섬’이라고 불렀다가 이후 일본인들이 한자사용을 강제하자 음을 빌려 나로도(羅老島)라고 이름지었다는 설이 있다. 나로도도 나라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한 병마 공급기지로 국가적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우주센터는 지리적 위치 등을 면밀하게 고려한 후 터를 잡았다. 유추하자면 국력을 과시하는 로켓발사가 국

민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일인만큼 경사와 연관지을 수 있는 고흥에 우주센터가 들어선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렇듯 로켓발사와 연관지어볼 수 있는 고흥이라는 이름 자체도 눈길을 끈다. 한자 뜻 그대로 흥겨움이 충만한 곳이라는 뜻이다.

중국인들에게 고흥을 소개하면 매우 흥미로워 한다. 중국어로 기쁨이나 즐거움을 뜻하는 ‘까오싱’(高興)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흥과 똑같기 때문이다. 그네들은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 땅이기에 그런 이름이 생겨났느냐”며 놀라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이 같은 의미를 지닌 고흥에서 예정돼 있는 로켓발사는 국가적 대사업에 틀림없다. 더욱이 경제난의 터널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시점에서 로켓발사는 중차대한 일임이 틀림없다. 고흥에서 로켓 발사가 성공해 국가적 자존심을 높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박치경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고흥(高興)



각종 체육시설 사용 안할때 조명탑 끄자

얼마 전 모임이 있어서 친구가 사는 아파트에 갔었다. 친구가 사는 곳은 800세대 가까이 되는 큰 아파트 단지여서 그런지 각종 체육시설이 잘배어있었다. 그 아파트에 갔을 때가 저녁 7시였는데 마침 테니스장이 대낮처럼 환히 밝혀져 있는 것을 봤다. 누군가 테니스를 치나보다 했는데 테니스코트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물론 운동 시설을 타할 수 없지만 테니스장 조명 같은 게 너무 무관심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다른데도 아닌 테니스장은 아주 강렬한 전광판 조명이 켜져 대

낮처럼 밝은 특징이 있다. 그 조명탑에는 커다란 전구 40여 개가 촘촘히 박혀 한눈에 봐도 전기료가 많이 나올 듯 했다.

아무도 안 쓰는 테니스장에 켜놓은 조명 시설은 너무나 큰 낭비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관리를 안 해 전국적으로 낭비되는 테니스장 전기가 예사롭지 않을 듯 싶었다. 너나 할 것 없이 가까워서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에너지 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절약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임종선·광주시 동구 신수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淸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虎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 지원 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 홍보 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34	어촌개발부 2200-679	다 자 인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